

韓國圖書館史研究 (五)

朴 熙 永

目 次

3) 實 錄

4) 活 字

3) 實 錄

高麗時代에는 實錄을 비롯하여 여러 種類의 史記 卽 歷史書籍이 編著되어 刊行되고 있다. 그중에서 지금까지 傳하여져 貴重하게 여기고 있는 것으로 金富軾이 編著한 三國史記가 있는것이다.

增補文獻備考 卷之二百四十四 藝文考 三 史記에서 高麗時代에 編著한 史記만을 추려 본다면 아래의 같다.

三國史五十卷 王命金富軾撰 仁宗二十三年成

編年通載續編 睿宗命洪灌等修集

高麗編年通錄 閔漬等撰

世代編年節要七卷 閔漬所撰

本朝編年綱目四十二卷 閔漬所撰

金鏡錄一卷 李齊賢等撰

帝王韻記二卷 李承休所撰

古今錄十卷 朴實亮所撰

古今錄 許洪, 韓康, 元傅, 李仁復撰

七代事蹟三十卷 黃周亮撰

太祖至穆宗七代事蹟

太祖實錄 黃周亮撰

太祖紀年 李齊賢撰

德宗實錄 李齊賢撰

睿宗實錄 金富軾, 朴昇中, 鄭克永撰

仁宗實錄 金富軾撰

毅宗實錄 文克謙撰

明宗實錄 崔甫淳, 金良鏡, 任景肅, 俞升朝, 李奎報, 權敬中, 趙文拔撰

四朝實錄 柳璣領, 許珙撰

神, 熙, 康, 高의 四朝實錄

三朝實錄 李毅, 李仁復撰

忠烈, 忠宣, 忠肅의 三朝實錄

以上인바 여기에 實錄이란 말이 붙어있는 太祖實錄이라는 것부터 그아래가 所謂實錄이라고 할수 있는 것이 아닌가 한다 한편 增補文獻備考 卷二百二十一 職官考八 春秋館에 보면 高麗는 國初에 史官이라는 官署가 있고 監修國史가 있어 時政記를 掌하였다고 하며 春秋館으로 改稱하게 되고 實錄을 撰하였다는 것을 알수 있는바 時政記가 卽 實錄이며 國史라고 하겠다.

高麗史 卷十五 仁宗一에 있는 睿宗十七年 九月條에

「乙亥修睿宗實錄以寶文閣學士朴昇中翰林學士鄭克永寬文閣待制金富軾充編修官」이라고 있고

高麗史節要 卷八 睿宗十七年九月條에

「命修睿宗實錄先是平章事韓安仁奏睿宗在位十七年事業宜載史冊貽厥後世請依宋朝故事置實錄編修官制以寬文閣學士朴昇中翰林學士鄭克永寶文閣待制金富軾充編修官」이라고 있다. 이 두記錄을合해서 본다면 睿宗 17年(1122) 9月19日 睿宗實錄을 編修하도록 命하였는데 實은

睿宗의 在位17年間의 事業을 마땅히 史冊에 실어서 이를 後世에 물려 주어야 한다는 平章事安仁이 宋朝故事에 依하여 實錄編修官의 制를 두자는 以前의 請에 依하여 이룩되었다. 그래서 寶文閣學士 朴昇中, 翰林學士 鄭克永, 寶文閣待制 金富軾이 編修官으로 命되어 이를 編하게 되었다. 이 記錄으로 본다면 睿宗17年(1122)以前에는 아마도 編修官이 記錄하였다가 이를 實錄으로 編한것이 아니고 다만 時政記만 記錄하였던 것으로 된다. 高麗史에 記錄된 實錄編修에 關한 것을 추려 본다면 아래와 같다.

睿宗17年(1122) 9月19日

睿宗實錄의 編修를 朴昇中, 鄭克永, 金富軾에게 命하다.

※高麗史 卷十五 睿宗十七年九月乙亥條
高宗14年(1227) 9月4日

明宗實錄을 崔甫淳, 金良鏡, 任景肅, 俞升旦 등이 撰하다.

※高麗史 卷二十二 高宗十四年九月庚辰條

元宗8年(1267) 10月29日

神熙康三代實錄의 編修를 李藏用, 柳璣, 金珩, 許珙에게 命하다.

※高麗史 卷二十六 元宗八年十月壬午條
忠烈王3年(1277) 5月14日

高宗實錄의 編修를 柳璣, 元傳, 金珩에게 命하다.

※高麗史 卷二十八 忠烈王三年五月壬寅條
忠宣王元年(1309) 2月24日

忠憲王實錄(高宗)의 編撰을 命하다.

※高麗史 卷三十三 忠宣王元年二月戊寅條

忠宣王3年(1311) 11月3日

忠敬王(元宗) 實錄의 編修를 命하다.

※高麗史 卷三十四 忠宣王三年十一月庚

子條

忠肅王1年(1314)1月20日

太祖以來의 實錄을 閱訖, 權溥에게 略撰할 것을 命하다.

※高麗史 卷三十四 忠肅王元年一月乙巳條

忠惠王1年(1331) 9月24日

忠敬王實錄의 編修를 命하다.

※高麗史 卷三十六 忠惠王一年九月丙申條

忠穆王2年(1346) 10月16日

忠烈, 忠宣, 忠肅의 三朝實錄을 李濟賢, 安軸, 李毅, 安震, 李仁復에게 續撰할 것을 命하다.

※高麗史 卷三十七 忠穆王二年 十月庚申條

以上인바 이를 增補文獻備考의 것과 對照하여 본다면 아래와 같이 된다.

高麗史	增補文獻備考
睿宗實錄	太祖實錄
明宗實錄	太祖紀年
三代實錄	德宗實錄
高宗實錄	睿宗實錄
忠憲王實錄	仁宗實錄
忠敬王實錄	毅宗實錄
太祖以來의略實錄	明宗實錄
忠敬王實錄	四朝實錄
三朝實錄	三朝實錄

×

다음은 實錄의 保管場所에 關하여 살펴 본다면 增補文獻備考 卷二百二十一 職官考 春秋館에 본던

「高麗時歷代實錄皆藏于海印寺三年一曝曬」라고 있고 또한 增補文獻備考 卷二百四十四 藝文考 史記에 보던

「高麗歷朝實錄及經史諸書初藏於海印寺辛禰六年以倭寇漸逼移于得益寺後以寇轉深復移開天寺後復移七長寺遣史官 三年

一曝」이라고 있는 것으로 본다면 歷代實錄과 아울러 여러 圖書들도 海印寺에 藏하였으려 後에 倭寇로 因하여 得益寺, 開天寺, 七長寺等으로 移管하였던 것과 史官을 遣하여 三年에 한번 曝曬하였던 것을 알수 있다.

實錄이 固定場所로 부터 옮겨진 記錄을 살펴 본다면 아래와 같다.

高麗史節要 卷九 仁宗四年二月에

「……直史館金守雌獨負國史至山呼亭北掘地以藏之願免焚滅……」라고 있고

高麗史 卷九十八 列傳十一 金守雌에 보면

「……於丙午之亂入直史館不惜身命移藏國史昔唐韋述爲史官藏山之亂抱國史藏南山身陷賊……」이라고 있다.

即 仁宗4年(1126) 丙午亂이 있었을때 金守雌이 生命을 아끼지 않고 史館의 國史를 獨身으로 질머지고 山呼亭近處에 묻어서 國史가 亂을 避하도록 하였다는 記錄으로 國史를 史館에 두었던 것을 알수 있으나 이것은 當代의 것이 아니었던가 한다.

高麗史 卷二十六 元宗十年五月

「移彰善縣所藏國史於珍島」

高麗史 卷二十八 忠烈王即位年九月

「戊戌以提上宮中書省爲史館遷都以來未營史館奉寶錄假藏本闕佛堂庫」

高麗史 卷三十 忠烈王十八年一月

「丁巳移置先代實錄于禪源寺」

高麗史 卷一百三十五 列傳 辛禱五年九月

「移置海印寺所藏歷代實錄及經史諸書于善州得益寺」

同 辛禱七年七月

「甫州普門社所藏史籍請移內地遣史官移置忠州開天寺」

同 辛禱九年六月

「移忠州開天寺所藏史籍于竹州七長寺」

高麗史 卷四十五 恭讓王二年十二月

「移國史于忠州先是藏於竹州七丈寺今夏倭賊入侵故移之」 등의 記錄이 있는데 이를 綜合한 것으로 新增東國輿地勝覽 卷八 竹山縣 佛宇 七長寺에 보면

「辛禱九年以倭寇闖入內地移忠州開天寺所藏史籍于此

權近送裴仲員修日西史序本朝有海東數百年初藏國史于伽耶之海印蓋盛後世遭亂而墜失也伽耶在國最遠而險海印在伽耶最僻而深阻故國雖有變而亂未嘗及焉祖宗之慮遠矣此者制倭失律深寇州縣伽耶幾不守洪武己未秋僉其史于善之得益辛酉秋踰嶺而北又輸于忠之開天今癸亥夏賊又逼忠之旁縣七月又自開天移于竹之七長寺地之險遠不足恃而賊之敢深入乃若此嗚呼可以觀世變矣」이라고 있다.

① 禎王 5年(1379)

② 禎王 7年(1381)

③ 禎王 9年(1383)

元宗10年(1269) 5월에 彰善縣에서 珍島로

忠烈王即位年(1274)9월에 本闕佛堂庫로

忠烈王18年(1292) 1월에 禪源寺로

辛禱王5年(1379)9월에 海印寺에서 善州得益寺로

辛禱王7年(1381)7월에 甫州普門社에서 忠州開天寺로

辛禱王9年(1383)6월에 忠州開天寺에서 竹州七長寺로

以上과 같이 各各 移轉 保管한 것으로 된다. 如何間 實錄은 伽耶山의 海印寺에 保管하는 것이 原則으로 되어 있었던 것을 알수 있다.

高麗史 卷三十二 忠烈王三十三年十一月

「丙戌以前王命遣直史館尹頌奉先代實錄一百八十五冊如元時人皆不可曰祖宗實錄不宜出之他國」이라고 있으며 또한

高麗史 卷三十四 忠宣王四年五月

「壬寅王遣大護軍致仕鄭晟送還歷代寶錄」이라는 記錄으로서 忠烈王 33年(1307)11월에 先代寶錄 185冊을 元에 보냈다가 忠宣王 4年(1312) 5月 이를 다시 찾아왔었다는 것을 알수 있다.

4) 活 字

高麗史節史 卷三十五 恭讓王四年一月에 보면

「初置書籍院掌鑄字印書籍」이라고 있어 鑄字로서 書籍을 印하는 일을 掌하는 書籍院을 두었다고 하는데 그以前에 이미 鑄字로서 印당한 記錄이 있다. 卽 東國李相國後集 卷十一에 있는 新序詳定禮文跋尾에 보면

「……用鑄字印成二十八本分付諸司藏之……」이라고 있어 이를 立證하여주고 있다.

學校圖書館運營法

張 一 世 著 定價 1,000圓

發行：學校圖書 刊行會 서울 特別市 鍾路區 苑南洞 30

總販：乙 文 堂 서울 特別市 鍾路區 仁寺洞119
電話 ③ 5859 ③ 8985

原 稿 募 集

本誌에 掲載할 原稿를 다음과 같이 募集하오니 玉稿를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1. 圖書館事業에 關係되는 論文
2. 뉴우스 資料
3. 其他

磨勘 每月 15日

(編輯室白)